factory, 1개 영역에서 operation level을 받았다면 A시설의 평가등급은 unsatisfactory가 된다.

National Quality Standard와 High Quality는 모든 영역에서 NQS 등급을 받았거나, 모든 영역에서 unsatisfactory나 operation level가 없을 때 받게 되는데 NQS는 high Quality level를 받은 영역이 3개 이하일 때, High Quality는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과 시행 영역을 포함한 4개 이상 영역에서 High Quality level를 받아야 한다.

한편 Excellent는 High quality를 받은 시설이 별도의 등급평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받게 된다. 모든 시설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온라인상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3. 정책시사점

지금까지 영국과 호주의 보육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의 체계 특성을 정리하면 등록한 보육·교육 제공자의 기관이건 개인이건 자발적 참여에 의한 평가인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조사를 법에 의하여 받아야 한다는 점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서 자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부모에게 보내고, 당국에서도 홈페이지에 보고서 전문과 평가 결과를 그대로 올려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의 평가인증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그러나 2008년에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그 결과에 대한 조사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점은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의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벤치마킹한 사례 중의 하나로 운영체계나 지표 등에서 우리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증 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민간중심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호주 제도가 갖는 효율성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 평가를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시설의 평가 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질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서 지표를 수정하고 결과를 등급화 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강력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평가인증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바람직한 부모의 조건은 무엇이며,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2010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김낙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상임이사와 고선주 중앙건강지원센터장의 주제발표와 김미경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등 총 6명의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주제발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주제 1 바람직한 아버지의 의미와 사회 역할에 대한 고찰

주제 2 바람직한 부모됨을 위한 사회적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종합토론

좌장 **이영환** 한국보육지원학회장

김미경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미영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교육이사
이향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연구소장
조복자 서울시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

주제발표 1

바람직한 아버지의 의미와 사회 역할에 대한 고찰

김낙흥(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상임이사)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양자로서의 아버지 역할과 함께, 가정에서 긴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동시에 강조되는 전환의 시대, 본고는 1)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아버지됨의 의미는 무엇이며 2)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3)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7월부터 8월 한 달 동안 S시에 위치한 22곳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버지의

의미',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는데 어려운 점',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적 지원' 등 세 범주로 구분하여 자유반응형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85부의 질문지를 회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으로는 놀이상대자로서의 아버지(30.9%), 상담자로서의 아버지(27.2%), 정서지원자로서의 아버지(16.3%) 순으로 나타나서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부양자(4.0%) 또는 훈육자로서의 아버지(3.7%)보다 훨씬 많이 응답하여 바람직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는데 어려운 요인으로는 직장에서의 많은 업무량과 잦은 회식, 늦은 귀가 등의 사회적 어려움(5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양육에 대한 관심부족 및 양육기술 부족과 같은 개인적 어려움(29.3%)이나, 아버지 자신의 성장배경,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적 어려움(12.0%)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오던대로 과도한 헌신과 몰입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할로는 교육비 지원, 무상교육, 육아휴직, 주5일 근무 등 국가정책의 개선(33.0%)을 문화환경의 개선(23.8%), 교육환경의 개선(16.8%)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교육프로그램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사회 전체가 통합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이 시대가 바라는 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2

바람직한 부모됨을 위한 사회적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고선주(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2005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간을 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 글에서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사업과 현황을 소개하고 '좋은 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건강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133개소가 설립되어 있다. 이 중 각 지역센터의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족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전문적이고 통일된 서비스를 전국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기 위해,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교육프로그램'(2006),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프로그램'(2007), '가족성장아카데미'(2008), '예비부모교육: 알콩달콩 가족만들기'(2010) 등의 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 개발과 보급을 통해 전국 지역센터에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와 같은 부모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141,922명이며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4.4점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종료 직후 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 '자녀의 능력을 믿는다'(4점), '자녀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잘 해 준다'(3.9점) 등 평균 3.7점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문화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면서 2009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아동양육지도사 교육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의 전문적인 수행과 다문화부모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갈등과 위기에 놓여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적인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상담직후 이혼 철회 12.1%, 이혼 보류 18.1%로 나타나 가족해체를 방지하였다. 또한 이혼가족 중에서도 자녀양육문제를 합의한 경우가 52.6%로 나타나 이혼 후 나타날 수 있는 자녀양육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모역할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족품앗이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실시하여 개별가족이 고립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여 개별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모 지원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부모교육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부모학교' 운영 부모교육 수요처 발굴, 가족친화기업 부모교육지원,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 부모교육인센티브 개발 및 활용, 부모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등 부모교육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상담도 '찾아가는 가족상담', '정보제공 및 멘토링 기능보완' 등 그 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양육친화적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코디네이터(기관)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좋은 부모됨과 함께 사회적 전반적인 안전망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정리: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